

2018/07/16

에스엠(041510)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플라인업 가동 및 중국에서의 성장성

■ 키이스트 및 FNC애드컬처 인수는 수평적 확대로 영향력 강화 될 듯

동사는 키이스트 지분 25.1% 500억원에, FNC애드컬처 지분 30.5%를 300억원에 취득하면서 각각 회사의 1대 주주가 되었다.

키이스트 인수를 통하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확대 및 한류 미디어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NC애드컬처 인수를 통하여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드라마, 방송 제작 등의 사업은 시너지를 통하여 더욱 발전 시키고, 이와 더불어 스타와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F&B, 패션, 레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키이스트 및 FNC애드컬처 인수는 동사 사업영역의 수평적 확대이므로 향후 관련 사업의 영향력이 강화 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방신기 등 플라인업의 일본공연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 듯

동방신기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내 컴백 공연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시작한 일본 5대동 투어, 올해 6월 중순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 닛산 스타디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오는 7월 25일 일본 새 싱글 '로드(Road)'를 발매하며 9월부터 아레나, 돐 투어를 12개 지역에서 총 3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EXO 등 플라인업 가동과 더불어 레드벨벳, NCT의 일본 첫 투어 시작으로 올해 사상 최대 공연 관객수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일본에서의 콘서트 모객 수가 1분기에 112만명, 2분기 33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35만명 증가한 210만명으로 기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에서의 성장성 및 자회사 실적 턴어라운드

한한령(限韓令)이 해제 조짐으로 한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림메이커를 통해 2개의 중국 현지법인을 보유한 동사의 경우 향후 중국 사업 본격화로 인하여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SM C&C는 광고와 콘텐츠의 만남으로 시너지 효과 본격화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 될 것이며, 한중관계 개선으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중국 수출 가능해 지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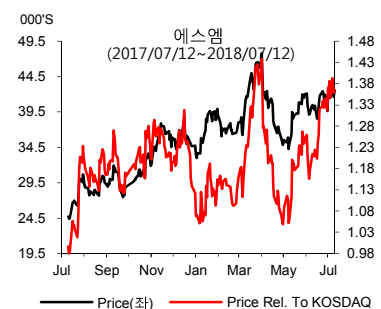
NR

액면가	500원
종가(2018/07/12)	42,60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1.3십억원
발행주식수	2,279만주
시가총액	971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0.3%
배당금(2017)	-
EPS(2017)	199원
BPS(2017)	16,077원
ROE(2017)	1.3%
52주 주가	24,400~47,800원
60일평균거래량	340,616주
60일평균거래대금	13.5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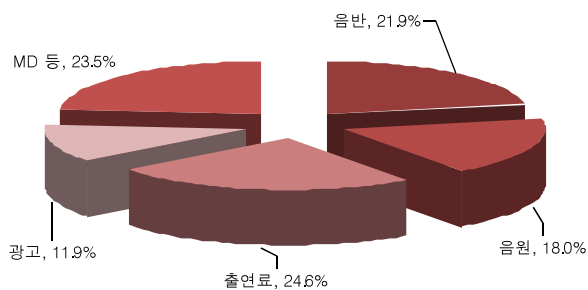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4	2,870	343	293	18	60	290	117.1
2015	3,222	384	308	184	217	1,048	41.0
2016	3,499	207	226	42	36	168	153.0
2017	3,654	109	244	-47	43	199	174.4
2018E	5,400	520	505	328	345	1,585	26.9
2019E	5,780	590	575	374	390	1,792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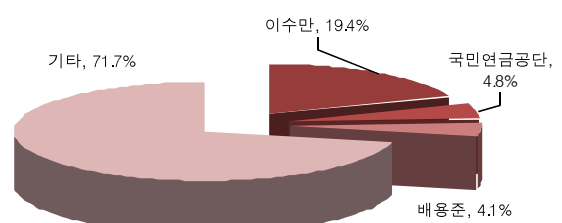
자료: 에스엠 하이투자증권

<그림 47> 매출구성(2017년 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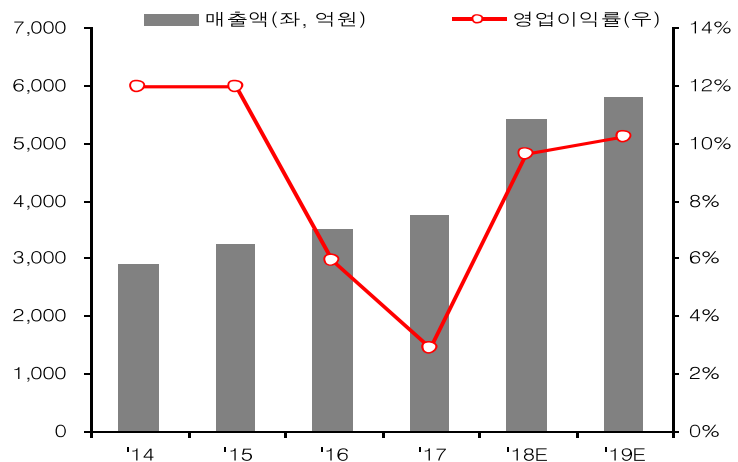
자료: 에스엠 하이투자증권

<그림 48> 주주분포



자료: 에스엠 하이투자증권

<그림 49> 에스엠 실적 추이



자료: 에스엠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에스엠)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8-03-19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헌\)](#)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9%	6.1%	-